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공부방법>

저는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점심시간과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1시간이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7~8시간 정도 일주일에 6일 학교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오늘은 너무 쉬고 싶으면 그때는 하루 종일 쉬기보다 최소한 3~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날은 푹 쉬고 다음날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시험날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스터디 카페로 옮겨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저의 공부 계획은 오전에 기본서 분량을 6분할로 하여 모든 법 과목(헌, 형, 경)의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서의 분량이 600페이지면 100페이지로 나누고 오전에 모든 법 과목의 기본서를 100페이지씩 다 읽으면 기출과 모의고사를 반복했습니다. 또 매번 출제되는 집시법, 경직법, 국자법 등 경찰학 조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일 법조문을 읽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항상 전자기기보다는 종이로 프린트하여 실제 경찰시험장과 똑같이 책상 위에 다 치우고 OMR카드를 작성하는 것까지 실제 시험과 최대한 똑같은 방법으로 모의고사를 풀었고 틀린 문제는 그 파트의 기본서와 기출을 다시 보며 고쳐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시험장에서 50분 정도를 남기고 문제를 다 풀어서 3~4번 정도 다시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만의 암기법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

헌법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다양하고 많이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서로는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암기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기출과 모의고사로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헌정사나 귀화법 등 출제가 자주 되는 법조문은 기본서를 참고하여 매일 봤습니다.

형사법은 학설과 법조문, 판례 등 다양하게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서와 기출을 같이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형벌론과 죄수론, 재산죄, 문서죄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그 파트를 매일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례형은 경찰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례형을 버리고 다른 문제를 더 맞출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례형을 풀 수 있어야 여러 파트의 쟁점이나 주요부분을 자신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형도 많이 풀어보며 다양한 쟁점과 문제 출제 방법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저는 형사법 사례형을 300문제 정도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파트의 주요쟁점도 쉽게 풀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고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를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1~2 문제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경찰학은 매우 짜증 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재미도 없고 외울건 많고 또 범위가 넓은 과목입니다. 그래도 항상 기본서를 잘 분할하여 꾸준히 읽고 본인이 자주 틀리는 파트는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법 파트에서 법 조문이나 판례 문제가 틀려도 그 부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전체의 내용을 다시 읽고 행정법 문제 전체를 다시 풀었습니다. 또 경찰학은 절차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부분은 단순히 읽기보다는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종이에 그려보며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계속해서 늘리기보다는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를 우선으로 공부하고 그 파트를 더 이상 틀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출제가 잘되지 않는 부분을 공부해서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체력>

체력은 제 생각엔 필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필기, 체력, 면접중에 체력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필기을 커트라인에 걸쳐 합격해 불안하더라도 충분히 체력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는 '필기붙으면 이제 운동만 할 수 있으니깐 운동은 필기붙고 제대로 준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평소 운동을 필기와 같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23년 1차 체력 준비기간은 모든 지역이 짧았습니다. 가장 빨리 보는 지역은 필기결과를 발표하고 5일~7일 뒤에 바로 체력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충남이 약 2~3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 운동을 격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상을 당해 과락을 맞거나 자신이 평소 목표하던 점수보다 2~3점 정도 덜 맞게 됩니다. 따라서 체력준비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필기와 병행하여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체력시험 영상을 찾아보고 자신의 자세를 촬영해 비교하며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면접은 교수님께서 현직분과 함께 소통하며 본인이 말하는 습관이나 자세를 봐주신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최근 이슈나 면접을 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같이 합격한 선배, 동기분들과 이야기도 하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준비기간에는 말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뉴스나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충남과 관련된 뉴스를 보며 충남에서 하는 치안서비스나 우수사례 등 정보를 다양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뉴스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접을 하기 5일 전쯤에 학교폭력 기사가 이슈 되었고 면접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이 학교전담경찰관(SPO)라 생각하고 얘기해보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뉴스와 정보를 많이 모으고 그 정보를 말하는 연습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또 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체험학습)이나 동아리도 많이 참여하여 경험을 쌓거나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경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등 활동을 많이 하면 면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경험이 많이 없어 면접을 준비하면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말>

저는 재학중에 최종합격보다는 최소한 필기라도 합격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운과 노력이 더해져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도중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하고 '만약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필기 공부와 체력준비를 하느라 너무 힘들다면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일과 목표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